

국내의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및 비용 실태분석*

정문주¹ · 김창대² · 김수임³ · 김혜경⁴ · 박현민⁵ · 손은령⁶ · 이필원⁷ · 이종범⁸ · 이형국^{9†}

¹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 조교수, ²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³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부교수, ⁴LG전자 가산R&D 캠퍼스 심리상담실장, ⁵수원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⁶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⁷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

⁸단국대학교 대학생활상담센터 전임상담원, ⁹상명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본 연구는 국내 상담 자격제도가 국가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자격 간 자격 요건, 수련 체계, 시험 기준, 제도적 인정 범위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구조적 복잡성과, 제도 간 공공성·접근성·실효성의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련 요건, 비용 구조, 감성 분석, 경제성 지수(EFI)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온라인 담론 및 제도 활용 사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자격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평판, 정책적 활용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부 민간자격은 과도한 수련 비용과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활용성이 낮아 사회적 신뢰 확보에 실패하고 있었으며, 정책 연계 여부에 따라 사회적 평판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체계의 일원화, 수련기관 인증제도, 공공 재정 지원, ‘상담사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격제도의 질, 경제성, 정책성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상담 자격제도, 자격의 실효성, 구조적 불균형, 수련 비용, 자격 인증 체계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형국 /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781-7778 / E-mail: lhk@smu.ac.kr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국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상담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제로 2022년 제21대 국회 회기에서는 상담서비스 관련 법안이 총 네 건 발의되었으며(이정환, 2022), 각 법안은 입법 주체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제공을 위한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제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었다(성현모, 이상민, 2022). 그러나 이들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고, 상담서비스의 제도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은 다시금 상담의 제도화를 국회 의제로 올렸다(의안정보시스템, 2025). 이 법안은 단순히 상담사 권익 보호를 넘어, 상담사의 교육 및 수련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내담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을 환기시키며, 상담의 전문성과 자격 기준의 제도적 정비를 정책적 과제로 부각시킨다. 그러나 국내 상담 자격제도는 여전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수임 외, 2021; 정문주 외, 2024).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제도와 달리, 민간자격은 학회 중심의 자율 운영으로 인해 자격 기준이 다양하고, 그 공신력과 전문성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이형국, 2018). 특히 일부 민간자격은 수천만 원대의 고액 수련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실무 연계성과 제도적

통일성이 부족하여(정문주 외, 2024), 예비상담사에게 경제적 부담과 자격구조의 불합리성과 분노감, 자격 실효성에 대한 회의감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담사의 성장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상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마음건강 및 권익 보호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이형국, 2016; 정문주 외, 2024).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담 자격 기준과 교육 체계를 구조화하여 자격제도의 일관성과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CACREP(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을 통해 상담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며(Lu, H. T., & Pillay, Y., 2020), 유럽은 WCP(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를 중심으로 윤리 강령과 자격 기준을 통합하여 국가 간 상호인정을 촉진하고 있다(Friedrich & van Hest, 2018). 이에 비해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교육과정 분석이나 자격 체계의 이론적 타당성 검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수련 구조나 현장 활용성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임지숙 외, 2025). 더불어, 해외 자격 기준을 국내에 단순 도입하려는 시도(임지숙 외, 2025)는 국내 상담 현장의 특수성과 수련 환경의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적용 가능성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문주 등(2024)의 연구는 상담심리사 자격 제도의 수련 비용 구조 및 제도적 복잡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격 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내 상담 자격 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격 요건, 수련 조건, 시험 과목, 비용 구조 등을 중심으로 주요 자격제도의 구조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온라인 감성분석 및 사회적 평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격증에 대한 대중 인식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정책 변화가 자격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셋째, 자격증별 취득 난이도, 취업 연계성, 비용 부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성 지수(Economic Feasibility Index: EFI)를 산출함으로써 제도적 투자 대비 실질적 성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 자격제도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학문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방 법

상담 관련 자격증의 자격 취득 절차, 수련 과정, 비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 서술적 조사 연구(Descriptive Research)법을 선택하였다(Lans et al., 2002).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및 절차

상담 관련 국내 주요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연

표 1. 연구대상 자격증 명칭과 종류

구분	자격증명	관련 법률 및 학회	등급
국가 자격증 (4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7조	1급, 2급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민간 자격증 (1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급, 2급, 3급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1급, 2급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1급, 2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2급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급수 없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1급, 2급,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1급, 2급, 전문가, 슈퍼바이저
	가톨릭상담심리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3급
	가톨릭부부가족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1급, 2급, 3급, 감독
	놀이아동상담사		
	원마음상담사	원불교상담학회	1급, 2급, 수련감독
	상담전문가 및 상담사	한국청소년상담학회	1급, 2급, 3급, 수련감독급
	심리상담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1급, 2급, 수련감독급
	놀이심리상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1급, 2급, 전문가, 교육전문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한국미술치료학회	1급, 2급, 전문가, 수련감독
	임상음악전문가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 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하, 전마투)에 공시된 4가지 자격증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청소년상담사(1~3급),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를 포함하였다. 민간자격증은 전마투 자격 기준에 포함된 3가지 자격증(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과 더불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등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 및 수련 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13개 학회의 15개 민간자격증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평판 및 실무 활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3단계의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국가자격증(국립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Q-net) 및 민간자격증(각 학회 웹사이트,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자격 요건과 체계를 파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학회 간행물 등 비공식 자료를 통해 자격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전마투 시행 전후 자료를 수집하여 자격증의 사회적 신뢰도와 활용 수준을 정량화하였다. 이를 위해 92개 대학/전문대학, 55개 대학원, 338개 공공 상담기관, 4,237개 민간 상담센터 정보 및 공고문, 그리고 ‘상담자격증’ 등 주요 키워드로 크롤링한 3,687건의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 수집에는 Python 기반의 BeautifulSoup, Selenium, KoNLPy, NLTK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항목은 CACREP (Forte, 2015) 및 WCP(Moodley et al., 2013)기준을 토대로 설정한 6가지(자격증 보유자 수 및 학회 규모, 취득 요건, 필기시험, 상담 수련, 취득 및 유지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회적 평판 및 실무 활용성 분석을 위한 온라인 자

료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7개월 간 주요 포털사이트(Google, Naver), 교육기관 웹사이트, 공공기관 채용 정보 포털(워크넷, 알리오) 등에서 “상담자격증” 등의 항목으로 15개 키워드를 활용한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분석방법

상담사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격증 보유자 수, 학회 회원 수, 취득 요건, 필기시험 과목, 상담 수련 영역을 빈도, 백분율, 평균 등으로 제시하고, 각 항목을 범주화하여 자격증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평판 분석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고, 워드 클라우드(Baker & McCallum, 1998). 및 토픽 모델링 기법(Vayansky et al., 2020)을 적용하여 자격증별 신뢰도와 실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시각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이때 SentiLex + 도메인 사전으로 얻은 기본 극성(± 0.05 임계)을 ‘실무 효율·제도 연계·비용·공정성’ 토픽 및 정책·채용 키워드 가중치와 결합한 Polarity Strength Index($PSI \geq \pm 1.5$)로 평가하고, 정책 발표 ± 90 일 단절회귀로 검증하는 Public Utility Sentiment Framework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OECD 보고서(OECD, 2017), 한국고용정보원 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19), Mustajab과 Irawan(2023)의 직업교육 경제효과 분석 방식, 그리고 Pang과 Lee(2008)의 감성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상담 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의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보가 없는 항목은 기술하지 않았다.

자격증 취득자

국가자격증

2025년 5월 기준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는 총 90,280명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45.52%)이며, 그 뒤로 임상심리사(26.45%), 정신건강전문요원(21.53%), 전문상담교사(6.50%) 순이다. 합격률이 명확히 제시된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1급 33.74%, 2급 40.56%, 3급 34.47%)와 임상심리사(1급 47.2%, 2급 26%)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전문상담교사의 합격률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표 2).

민간자격증

주요 민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는 총 32,295명으로, 이는 전체 민간 학회원 수 120,490명의 약 26.80%를 차지한다. 이 중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전마투사업) 관련 민간 자격증(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및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및 2급, 임상심리전문가) 소지자는 총 21,845명으로, 전체 상담 관련 학회원 수 대비 약 18.13%에 해당한다. 다음 표 3은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격증 취득 요건 및 절차

상담사 자격 취득 요건 및 절차를 학력, 학과 제한, 시험 유무, 자격 유지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단, 3급 자격의 경우 실제 채용 시장 및 전문 상담 영역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인원 및 비율, 합격률(2025년 5월 기준)

국가 자격증		인수(명)			총합 (비율%)
자격증명칭		1급	2급	3급	
		인원수(합격률%)	인원수(합격률%)	인원수(합격률%)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104(-)	1,482(-)	-	3,586(18.45)
	정신건강간호사	3,544(-)	5,999(-)	-	9,543(49.09)
	정신건강사회복지사	3,026(-)	3,161(-)	-	6,187(31.83)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06(-)	-	123(0.63)
청소년상담사		1,836(33.74)	16,123(40.56)	23,132(34.47)	41,091(45.52)
전문상담교사				-	5,869(6.50)
임상심리사		3,342(47.2)	20,539(26)	-	23,881(26.45)
총인원					90,280

* -: 공시 없음, 정신건강전문요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률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전체 인수만 공시되어 있지 합격률과 1급과 2급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았음

상담학연구

표 3.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인원 및 비율, 합격률(2025년 5월 기준)

		급수	인수 (명)		
			취득자수(합격률%)	총 자격취득자수(%)	전체회원수
전마투사업 민간 자격증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1,577(18)	9,534(22.65)	42,091
		2급	7,957(34)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200(15)	9,988(21.35)	46,772
		2급	7,788(27)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급수없음-	2,323(31.75)	2,323(21.96)	10,577
	전체	1급	6,100(-)	21,845(21.96)	99,440
		2급	15,745(-)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28(70.59)	224(5.10)	4,389
		1급	81(34.61)		
		2급	115(43.99)		
전마투사업 외 민간 자격증	명상심리상담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슈퍼바이저	17(100)	554(67.56)	820
		전문가	84(100)		
		1급	139(100)		
		2급	314(100)		
	가톨릭 상담심리사	전문영역수련감독	60(-)	2,069(-)*	
		일반수련감독	130(-)		
		1급	221(-)		
		2급	353(-)		
	한국가톨릭 상담심리학회	3급	1,305(-)		1,750*** /2,468
		전문영역 수련감독	115(-)		
	가톨릭 부부가족 상담심리사	일반수련감독	192(-)	399(-)*	
		1급	42(-)		
		2급	30(-)		
		3급	20(-)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감독	-		6,400
		1급	290(35.04)		
		2급	1,500(34.02)		
		3급	1,550(50.30)		
	놀이아동	감독	2(100)	112(1.75)	

정문주 등 / 국내의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및 비용 실태분석

상담사	1급	41(90.25)		
	2급	54(100)		
	3급	15(85.52)		
원마음상담사 (원불교상담학회)	수련감독	15(정보없음)	121(78.06)	155
	1급	41(정보없음)		
	2급	65(정보없음)		
상담전문가·상담사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수련감독	330	755(97.42)	775
	1급	332(100)		
	2급	93(100)		
	3급	-		
심리상담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수련감독	69(-)	284(100)	284
	1급	119(-)		
	2급	96(-)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학회)	교육전문가	13(-)	1004(21.80)	4,605
	전문가	29(36.67)		
	1급	222(29.04)		
	2급	740(65.79)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10(100)	443(-)	443
	전문가	113(92.09)		
	1급	282(90.86)		
	2급	90(96.30)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	786(77.92)	1145(-)	1145
	2급	315(50)		
	준2급	44(-)		
전체	1급			
	2급			
전체 총 인수(%)			32,295(26.80)	120,490

* : 중복카운트, ** : 임상음악전문가(한국음악치료학회)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022년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시, *** : 2025년 기준 회원 유지 학회원 수(기존 자격증 취득 자 중 회원유지 종료 학회원수 포함 자격증 취득자 기술),-: 정보없음

국가자격증

국가자격증 취득 요건을 분석한 결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 자격증의 경우 전반적으로 1급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반면, 2급은 학사 학위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단, 임상심리사의 경우 학사 예정자도 가능함). 자격증별로 특정 전공학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학력 조건 외에 전공 제한이 없어 비전공자도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절차는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리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수련 심사는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이 된 4개 국

가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는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제도가 안내되어 있었으나, 다른 자격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자격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표 4와 같다.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취득 요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격증은 상담 관련 학과 졸업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12개자격증(예: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은 자격 심사를 필수로 요구했으며, 3개자격증(예: 심리상담사(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은 요구하지 않았다. 필기시험은

표 4. 국가자격취득 요건 및 절차유무

자격증명칭		학력	학과	필기 시험	수련 심사	면접 시험	자격 유지	비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석사	심리학	-	0	-	심리학 학석사 필요, 수련 병행
		2급	학사	심리학	-	0	-	2급 후 3년 이상 실무 필요
	정신건강 간호사	1급	석사	간호학	-	0	-	관련 교육이수 및 실무 1년
		2급	학사	간호학	-	0	-	승급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석사	사회복지학	-	0	-	실습비 중심, 실무경험 필요
		2급	학사	사회복지학	-	0	-	승급 신청 형태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1급	석사	작업치료학	-	0	-	병 연계 수련 포함
		2급	학사	작업치료학	-	0	-	-
청소년상담사		1급	석사	상담관련	0	-	0	보수교육
		2급	학사	무관	0	-	0	
		3급	전문학사	무관	0	-	0	
전문상담교사		1급	석사	교육학(상담)	-	-	-	임용고시
		2급	학사	교직 이수 포함	-	-	-	
임상심리사		1급	석사	심리학	0	-	0	-
		2급	학사	심리학	0	-	0	-

* -는 정보 공시 없음

표 5. 민간자격취득 요건 및 절차유무

	급수	학력	학과	자격심사	필기시험	수련심사	면접	자격유지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0
	2급	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0
	2급	석사재학	상담관련	0	0	0	0	0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급수없음	석사	임상심리학	0	0	0	0	0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석사	상담관련	0	-	0	0	0
	1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0
	2급	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명상심리상담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슈퍼바이저	석사	상담관련	0	0	0	0	0
	전문가	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1급	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2급	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한국 가톨릭상담 심리학회	전문영역수련감독	석사	상담관련	0	-	0	0	0
	일반수련감독	석사	상담관련	0	-	0	0	0
	가톨릭상담 심리사	1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2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3급	학사	무관	0	-	-	0
	전문영역수련감독	-	-	0	-	-	-	-
	가톨릭부부 가족상담 심리사	일반수련감독	-	-	0	-	-	-
		1급	-	-	0	-	-	-
		2급	-	-	0	-	-	-
		3급	-	-	0	-	-	-
전문상담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감독	1급후 3년	상담관련	-	-	0	0	0
	1급	석사	상담관련	-	0	0	0	0
	2급	석재	상담관련	-	0	0	0	0
	3급	학사	상담관련	-	0	0	0	0
놀이아동상담사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1급	경력 3년	상담관련	-	0	0	0	0
	2급	석사	상담관련	-	0	0	0	0
	3급	학사	상담관련	-	0	0	0	0
원마음상담사 (원불교상담학회)	수련감독	박사	상담관련	0	0	0	0	0
	1급	석사	상담관련	0	0	0	0	0
	2급	전문학사	상담관련	0	0	0	0	0

상담학연구

상담전문가·상담사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수련감독급	박사수료	상담관련	0	0	0	0	0
	1급	박사수료	상담관련	0	0	0	0	0
	2급	석사수료	상담관련	0	0	0	0	0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학회)	교육전문가	박사	놀이치료관련	0	0	0	0	0
	전문가	석사	놀이치료관련	0	0	0	0	0
	1급	석사	놀이치료관련	0	0	0	0	0
	2급	학사	놀이치료관련	0	0	0	0	0
임상미술심리상담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경력 3년	미술치료관련	-	-	0	0	0
	전문가	2급후 2년	미술치료관련	-	0	0	0	0
	1급	학사	미술치료관련	-	0	0	0	0
	2급	학사	미술치료관련	-	0	0	0	0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	학사	음악치료관련	-	0	-	0	0
	2급	학사	음악치료관련	-	0	-	0	0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는 급수가 존재하지 않음 * 홈페이지 정보공시 부재, -: 정보 없음

6개 자격증(예: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에서 요구되었으며, 수련 심사는 3개 자격증(예: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면접 시험은 5개 자격증(예: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에서 나타났다. 자격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자격증은 4개 자격증(예: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이었다. 본 분석에서는 상담 전문가로서의 심층적인 역량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3급 자격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보는 표 5와 같다.

필기시험 교과목

국가자격증

국가 자격증 중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는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필기시험 교과목 분석 대상은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리사로 한정되었다. 비교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1급 및 2급 자격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청소년상담사는 급수별로 필수 이수 과

목과 함께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규정하는 반면, 임상심리사는 필수 과목만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6>과 같다.

민간자격증

필기시험 과목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격증에서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반영하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 상담, 연구방법론, 심리평가, 상담 윤리, 성격 및 발달 심리, 이상 심리가 공통 과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격증은 고유한 전문 영역과 강조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상담 지식과 실무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는 상담과 관련된 교과목보다는 심리 진단 및 평가 위주의 교과목으로 차별화하였다. 특히 명상심리상담사의 경우, 필수 과목 내에 자비명상, 명상관법 등을 포함하는 명상 영역이 별도로 명시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

표 6.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교과목

자격증명칭 및 급수	필수과목	선택과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연구방법론, 고급이상심리학, 고급심리검사, 고급임상심리학, 고급심리치료	없음
	2급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없음

였다. 이와 유사하게, 놀이심리상담사, 임상음악전문가, 임상미술심리상담사 등은 놀이, 음악, 미술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이론을 다루어 특정 내담자에게 특화된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개입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가톨릭, 기독교, 원불교 기반 상담 자격은 각 종교의 영성, 철학, 가치관을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7과 같다.

상담 수련 영역 및 최소 수련시간

국가 자격증

국가 심리 상담 자격의 수련 요건은 종류별로 상이하다. 청소년상담사는 급수별 총 101시간의 연수(이러닝 45시간, 집합교육 56시간)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상담 수련과는 구분된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최소 수련 요건 심사를 거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1급 3,000시간, 2급 1,000시간의 수련 시간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수련 내용은 미공개이다. 산업인력공단 주관의 임상심리사 2급은 학사 이상 후(졸업 예정자 포함) 실무경력 2년 또는 실습수련 1년을

요구하지만, 석사 이상 학위자는 실무경력 인정으로 실제 수련 없이 취득 가능하다. 1급은 관련 석사 후 실습수련 2년 또는 실무 4년, 혹은 2급 취득 후 실무 5년의 요건을 갖추나, 수련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민간자격증

전마투기준 민간자격증 수련영역 및 시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1,2급)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1,2급는 내담자 경험,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슈퍼비전, 사례보고서, 공개사례발표, 집단 경험 등 다양한 상담 실무 영역에서의 수련을 요구하며, 학술대회 참석 및 연수 이수, 연구실적 등을 필요로 했다. 2급의 경우, 1급에 비해 요구되는 경험 시간이나 사례 수가 줄어들지만, 주요 수련내용 및 영역은 유사하였다. 반면,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는 수련 영역 중 심리검사 중 종합심리평가와 관련한 수련, 슈퍼비전 시간만을 명시하고 연구실적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8, 9, 10과 같다.

상담학연구

표 7. 민간자격증 필기시험 교과목

자격증명칭 (학회)	급수	필수과목	자격증명칭 (학회)	급수	필수과목	선택과목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상담철학과 윤리, 고급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심리평가와 진단,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상담사 (한국청소년 상담학회)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상담윤리 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와 상담 상담연구방법론 진로상담 가족상담 (7영역 중 6과목 선택응시)		2급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 심리학회)	1급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상담사 (한국청소년 상담학회)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2급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 심리학회)		기초: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임상: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전문상담사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1급	기독교(목회)상담 연구방법론 기독교(목회)상담과 영성 상담자훈련 및 상담윤리 종교적 경험과 심리	중독과 영성 분석심리학과 표현예술치료
부부가족 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 학회)	1급	가족치료, 가족관련상담이론, 인간발달, 상담윤리, 연구방법		2급	기독교상담,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 정신역동, 가족치료, 집단상담	
	2급	가족치료, 가족관련, 상담이론, 인간발달		3급	기독교상담,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 정신역동	
명상심리상담사 (한국명상심리 상담학회)	슈퍼 바이 저	명상영역: 명상에 기반한 인지상담(MiCT), 수용전념상담(ACT), 변증법적 행동상담(DBT) 심리상담: 에너지그림 상담 가이드, 심리도식, 인지행동치료 연구방법: 현상적 연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슈퍼비전	놀이아동상담사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1급	기독교(목회)상담 연구방법론 상담자훈련 및 상담윤리 고급놀이아동상담 고급아동정신병리(발달정신병리) 고급아동심리평가	
	전문 가	명상: 자비명상, 명상관법(3), 간화선 심리: 행동수정, 심리극의 이론과 실제, 가족세우기 상담: 가계도와 가족상담, 고급 집단상담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2급	기독교상담, 놀이아동상담 아동발달, 아동정신병리(발달정신병리) 아동심리평가	
				3급	기독교상담, 놀이아동상담 아동발달, 아동정신병리(발달정신병리)	

정문주 등 / 국내의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및 비용 실태분석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내러티브		아동심리평가	
1급	명상 : 호흡명상(1), 느낌명상(2), 영상관법(2) 심리 : 심리도식, 이상심리학 상담 : 에니어그램, 상담연습 연구방법 : 심리평가, 사례연구방법론	원마음상담사 (원불교 상담학회)	수련 감독 원불교 상담철학
	명상: 호흡명상(1), 느낌명상(1), 영상관법(1) 심리: 우울, 분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상담: 상담기술연습, 집단상담		1급 상담이론과 실제, 사회심리학, 가족상담, 심리검사 2급 상담이론과 실제(상담윤리 포함), 심리검사(기초), 집단상담, 발달심리학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학회)	전문 가 놀이심리상담이론Ⅱ,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연구방법론	임상음악전문가 (한국음악 치료학회)	1급 기초, 교육학, 병리학, 심리학, 음악학, 기타 전공* 2급 정보 없음
	1급 놀이치료심화, 고급발달심리, 발달정신병리, 고급심리평가		전문가 상담이론, 정신병리, 가족미술치료, 아동미술치료, 투사검사
	2급 놀이치료, 정신병리, 심리평가, 상담심리	임상미술 심리상담사 (한국미술치료학 회)	1급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2급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병리,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아동 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가톨릭 상담심리사	1급 상담영역: 정신병리학, 성격심리학, 고급상담심리학, 부부/가족/청소년 상담심리학 영성영역: 그리스도교 영성심리학, 그리스도교 영성상담, 가톨릭신학, 신구약성경개론	가톨릭부부가족상 담심리사 (한국가톨릭 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의 통합적 적용, 부부 및 가족문제의 진단 및 평가, 이혼 관련가족법과 사례연구Ⅱ 영성영역: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Ⅱ
	2급 상담영역: 이상심리,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발달심리 영성영역: 가톨릭상담, 종교영성심리, 가톨릭교의, 가톨릭상담윤리		2급 상담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의 실제Ⅱ, 부부 및 가족의 평가Ⅱ, 이혼 관련가족법과 사례연구Ⅰ 영성영역: 그리스도교영성과 부부가족상담Ⅰ
	3급 가톨릭평생교육 내 영성심리상담 아카데미 과정		3급 부부 및 가족상담의 실제Ⅰ, 부부 및 가족의 평가Ⅰ, 가족법

* 가족음악치료, 노인음악치료, 성인음악치료, 신경재활음악치료, 이상심리학, 즉흥연주기술, 음악분석개론 및 감상, 음악과 인간행동, 음악심리
치료, 음악과심상, 음악치료학개론, 음악심리학개론, 음악치료기술, 음악치료철학, 음악치료연구법, 음악치료 진단과 평가, 음악치료세미나, 음
악치료임상기법, 의료현장 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 특수아동음악치료, 장애아동의이해, 상담심리학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는 급수가 존재하지 않음

상담학연구

표 8.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 급수 수련 범주별 요건(수련영역, 시간, 세부사항)

구분	1급 A범주 (540시간 / 3년 이상)	1급 B범주 (720시간 / 4년 이상)	2급 C범주 (170시간 / 1년 이상)*
접수면접	없음	20시간: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개인상담 내담자경험	2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한 상담자에게서 5시간 이상 지속된 시간 인정	3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한 상담자에게서 5시간 이상 지속된 시간 인정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한 상담자에게서 5시간 이상 지속된 시간 인정
내담자 경험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7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집단 수: 2개 집단 이상 포함	- 집단원 경험 또는 지도자 경험 (45시간) 리더 경험 또는 집단원 경험 선택 가능 · 집단당 최소 10시간, 보조지도자는 수련감독자와 함께 진행*
상담자 경험	330시간 ·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 심리검사 4시간(2사례) 내외 × 3회 이상, 인정검사 15건 이상 포함	42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심리검사13: 상담기간 내 실시 · 해석 진행한 건으로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 (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12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60시간 · 6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 심리검사 2회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 (동일사례 3회까지, 인정검사 5건 이상 포함)
개인상담	슈퍼비전	7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24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포함	2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 주제 1~3개 가능 · 2~3명 구성 시 각자 사례 준비 · 본인사례 슈퍼비전 4시간 이상 포함
사례보고서	없음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공개사례발표	2사례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	2사례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	없음

정문주 등 / 국내의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및 비용 실태분석

	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10시간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소계	440시간	590시간	120시간
지도자 경험	4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1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5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지도자 역할 - 주 지도자: 2사례 이상 총 30시간 이상 포함 - 나머지 20시간은 주 지도자 또는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단,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원 또는 지도자 경험 45시간 · 집단원 경험과 지도자 경험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집단원 경험 시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지도자 경험 역할: 주 지도자, 보조 지도자 모두 가능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집단상담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슈퍼비전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슈퍼비전 또는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5시간 · 슈퍼비전과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슈퍼비전 인정기준 -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본인사례/참관사례 모두 가능 - 집단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인정 기준 - 주최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사례보고서 제출	없음	1사례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 (해당 없음)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발표자료	1사례 ·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공개사례발표 1사례 · 동일 기준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10	- (해당 없음)

제출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시간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소계 100시간	소계 130시간	소계 50시간
연차학술대회	1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1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1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6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 세션) 7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2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8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 세션) 7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2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20시간: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 세션) 2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기타 요건			
연구실적	4항목 중 택 1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A&HCI, SCOPUS 포함)에 게재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연구실적 4항목 중 택 1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SSCI, SCI(E), A&HCI, SCOPUS 포함)에 게재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 (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 (해당 없음)
	총합 540시간 (3년 이상)	720시간 (4년 이상)	170시간 (1년 이상)

* 2급 D법주는 2023년 기준으로 C법주의 수련시간 및 인정조건을 두 배로 산정

표 9.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 급수 수련 범주별 요건(수련영역, 시간, 세부사항)

영역	상담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접수면접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 슈퍼비전: 5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기 이상 (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슈퍼비전: 10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집단상담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리더 또는 보조리더 경험: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슈퍼비전: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 (1사례당 3개 이상 검사,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슈퍼비전: 10사례 이상 (1사례당 3개 이상 검사,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지능검사(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표준화 집단용 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직업적성검사, MBTI 등 • 검사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에서 지도 및 피드백을 받아야 함	검사실시: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검사,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슈퍼비전: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검사,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K-WAIS, K-WISC, K-WPPSI, K-ABC 등 • 표준화 집단용 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MBTI 등 • 단, 한 검사자가 전체 사례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 발표	본회, 상담실제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사례 발표 4회 이상 (3주 이상 발표 간격 유지) 2급 취득 후 개인상담 5사례, 총 30회기 이상 수행 필요	본회, 상담실제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사례 발표, 총 10회기 이상 (3주 이상 발표 간격 유지) ※ 외국자격증 소지자는 협회에서 1사례, 총 10회기 이상 발표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 6회 이상 포함하여 총 30회 이상 참여	학회·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 2회 이상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표 10.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수련 요건(기관·등록·연차 및 내용별 최소 이수)

구분	세부 항목	최소 이수 요건 (석사·석준)	최소 이수 요건 (박사과정)	최소 이수 요건 (박사학위)	인정 기준·비고	근거
총 수련시간/기간	연간·총 기간	연 ≥ 1,000h(최소 800h는 조건부) × 3년 = 3,000h	연 ≥ 1,000h × 2년 = 2,000h	연 ≥ 1,000h × 1년 = 1,000h	연 800h는 '조건부' 가능, 다음 해 합산으로 1년 인정	7, 10(1)
필수수련기관 이수	필수기관 내 수련	1년 이상 / ≥ 1,000h	1년 이상 / ≥ 1,000h	1년 이상 / ≥ 1,000h	전체 수련 중 최소 1년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수	3, 4, 7
필수수련기관 요건	인력·환경	임상심리전문가 상근전임 ≥ 1 또는 전임 ≥ 2	동일	동일	평가·치료·슈퍼비전 가능, 유급수련 원칙, 연합체 가능(최소 1기관 상근전임)	3, 4
수련등록 시점	활동 인정 시각	상반기 등록: 그 해 3월부터	하반기 등록: 그 해 9월부터	동일	대학원 과정 이상, (논문)지도교수=임상심리전문가	5(수련활동 개시)

상담학연구

연차 기입 원칙	보고 연차	‘연차 수료 인정 기간’ 기준 기입	동일	동일	대학원 1년 인정받아도 보고서는 인정연차 기준 적용	5(연차 기입)
수련중단/휴식	소멸·재개	휴식 연속 >5년이면 이전 경력 소멸	전체 10년 내전 과정 종료	—	중단 증빙 시 이전 시간 인정, 1년 6개월 내재개·모집보고 필요	7(중단), 5(기한)
심리평가	총 시간	≥300h	≥200h	≥150h	모든 평가 보고서·진단적 언급 포함	7, 8
	FULL BATTERY 비율	≥50%는 종합평가로 채움 (즉, 최대 50%까지만 신경심리·재활평가로 대체 가능)	동일 원칙	동일 원칙	종합평가 1사례 최대 8h산정	7(“이 중 50%” 해설), 8
	종합평가 사례 수	≥30례	≥20례	≥15례	지능+성격(정서)+기타 인지/신경심리 포함	7, 8
	단일검사 인정	—	—	—	자기보고 설문만(MMPI/PAI 제외)으로 한 평가는 불인정. 단일검사는 가능하나 보고서·진단적 언급 필수	8(평가 기준)
심리치료	총 시간	≥300h	≥200h	≥150h	수련감독자 지도 필수	7
	주치료 수행	≥100h (≥10례)	≥70h (≥7례)	≥50h (≥5례)	감독자의 지도감독: 50h / 40h / 30h 이상	7
	교육분석 인정	총 요구시간의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개인·집단 치료 참여(증빙)	7
	준비·감독 준비	총 요구시간의 최대 20%	최대 20%	최대 20%	치료 실시 준비, 감독 준비	7
	회기 인정 기준	1례 = 3회기 이상	동일	동일	접수면접·평가 목적 1회기·단순 참관 불인정	7(“1례” 정의)
사례발표	횟수·시간	≥2회(총 ≥4h)	≥2회(총 ≥4h)	≥2회(총 ≥4h)	학회/지회/연구회 발표, 1회는 학회 논문발표(포스터·구연) 대체 가능	7
연구논문(1저자)	게재 요건	수련기간 중 A급 학술지게재 시 인정	동일	동일	KCI 등재/후보 및 준하는 국외지(APA/SCI/SSCI 등)	7(논문)
학술·사례회의 참석	시간	학술 ≥30h, 사례 ≥10h	동일	동일	지회·연구회 **학술 50% / 사례 100%**까지 인정(평점·증빙 필수)	7, 8
대외협력	사회참여	≥30h	≥30h	≥30h	기관장 확인서(불가 시 감독자 확인서), 단순 내부 보조 불인정	7
윤리교육	이수	수련 중 1회 이상	동일	동일	매년 봄 학술대회, 이수표 보관	7
대학원 수련 인정	연차/학점	모집보고 후 최소 1년 활동 = 연차 1개인정 / 이론 1학점 = 17h	실습과목은 실제 실습시간	동일	지도교수=임상심리전문가, 타전공·외부감독만으로 인정 불가	7(대학원), 등록기준

그 외 민간자격증 수련영역 및 시간. 각 학회별 상담 자격 수련의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회에서 내담자 경험과 집단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접수 면접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상담자 경험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한국청소년상담학회(시간 기준), 한국가족치료학회(사례 수 기준)에서 요구

된다. 공개사례발표회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한국청소년상담학회(시간 기준), 한국가족치료학회(급수별 차등)에서 요구된다. 이 외에도 슈퍼비전, 사례보고서, 해석상담, 지도자 경험, 학술대회 참석 등 학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수련 영역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민간자격증 수련영역 및 시간(h)

항목	명상심리상담사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상담전문가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심리상담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슈퍼 바이저	전문가	1급	2급	슈퍼 바이저	1급	2급	수련감독	1급	2급	수련 감독	1급	2급
내담자 경험	24(h)	24(h)	24(h)	24(h)	80사례 / 400(h)	50사례 / 250(h)	20사례 / 100(h)	20	20	10	40	40	50
접수면접	20(h)	20(h)	20(h)	20(h)				130	130	70	20	20	70
상담자 경험 (심리검사)	40(h)	40(h)	40(h)	40(h)				-	-	-	30	30	40
심리검사								50	50	20	-	-	-
해석상담								-	-	10	-	-	-
슈퍼비전	3회 (10h)	3회 (10h)	3회 (10h)	3회 (10h)	70 (h)	100 (h)	30(h)	30(h) (4회 발표 포함)	30(h) (포함)	10	-	-	-
사례보고서								50	50	20	-	-	-
공개사례발표 / 참여	2회 (10h)	2회 (10h)	2회 (10h)	2회 (10h)	17회	16회	7회	120	120	50	60	60	50
집단경험 또는 지도자 경험	30(h)	30(h)	30(h)	30(h)				-	-	-	60	60	60
사례보고서								-	-	-	80	80	80
슈퍼비전 또는 집단 상담 공개사례발표	2회 (10h)	2회 (10h)	2회 (10h)	2회 (10h)				130*	100 (동일)	70 (동일)	3	3	1
연차학술대회					36(h)	10(h)	6(h)	-	-	-	60 (h)/ 90 (h)	60 (h)/ 90 (h)	60 (h)/ 90 (h)
연수 / 학술모임								-	-	-	-	-	-
연구실적								-	-	-			

*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 시간의 1/3은 집단상담 시간으로 인정

종교기반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수련영역 및 시간. 종교 기반 상담 자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 슈퍼비전 등 공통 수련 영역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종교 학회 및 급수별로 상이하다.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는 1급에서 다양한 실무 영역을, 한국기독교상담학회는 집단상담 등을 기본으로 하위 급수에서 요건이 축소된다. 원불교상담학회는 개인/집단 상담 시간 외 지도 경험 등을 요구하며 2급 기준은 낮다. 각 자격은 공통 영역 외 종교적 가치를 반영한 고유요건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2)

놀이, 미술 심리상담사 수련영역 및 시간. 놀이심리상담사(한국놀이치료학회)는 전문가, 1급, 2급 모두 개인상담, 해석상담, 슈퍼비전 등의 수련요건을 가지며, 전문가의 경우 사례발표와 연구실적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반면, 임상미술심리상담사(한국미술치료학회)는 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 모두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수련을 요구하며, 전문가와 1급은 심리검사와 해석상담 요건을 포함한다. 특히 임상미술심리상담사는 슈퍼비전 횟수를 명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13과 같다.

표 12. 종교기반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수련영역 및 시간

항목	가톨릭상담심리사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원마음심리상담사 (원불교상담학회)	
	1급	2급	1급	2급	3급	1급	2급
개인상담	20	10	-	-	-	20(h)	10회
집단상담	300	50	50회	10회	3회	50회	20회
내담자 경험	10	5	10회	4회	1회	10회	3회
접수면접	40	15	7회	3회	1회	10회	3회
상담자경험(심리검사)	4회/100회	2회/40회	2회	-	-	2회(5회참여)	-
해석상담	48회	32회	-	-	-	45(h)/집단수퍼비전 3회	15(h)
슈퍼비전	12회	4회	16회	16회	21회	-	-
사례보고서	봉사	봉사	-	-	-	-	-
공개사례발표/ 참여	160	32	-	-	-	1회(2회참여)	-
집단경험/ 지도자경험	-	-	-	-	-	15시간(지도자)/ 30시간(집단)	15(h)(집단)
연차학술대회	-	-	-	-	-	-	-
연수/학술모임	-	-	-	-	-	-	-
연구실적	-	-	-	-	-	-	-

† 상담심리연구활동: 40시간, 전화상담 100시간 이상, 교육분석 20회이상 수련342+이론 720시간=1062시간

※ 상담심리연구활동 10회 2*8시간=160시간, 공개사례발표회 100사례 이상 참관(집단수퍼비전 참석에 따른 인정비용은 교육학회 시행세칙을 따름) 100사례*90분 =9000분=150시간, 학술활동, 3시간 *15주=45시간, 전화상담 300시간이상, 교육분석 50회이상

표 13. 놀이, 미술 심리상담사 수련영역 및 시간

항목	놀이심리상담사(한국놀이치료학회)			임상미술심리상담사(한국미술치료학회)			
	전문가	1급	2급	수련감독	전문가	1급	2급
개인상담	1,000회기 이상	300회기 이상	20회기(놀이심리상담)	300	20	20	20
집단상담				80	500	300	300
기타요건					1	10	
내담자 경험	10사례 이상	5사례 이상					
접수면접							
상담자 경험(심리검사)							
심리검사					50	30	
해석상담	15사례 총 120회기 이상(최소 3년)	5사례 총 50회기 이상(최소 1년)			1회/45회	1회/45회	
슈퍼비전	4회 이상	1회 이상		1회/10회	20	20	
사례보고서							
공개사례발표 / 참여							
집단 경험 / 지도자 경험			10회 이상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사례보고서							
슈퍼비전 또는 집단상담공개사례발표	30회 이상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사례연구회 4회 이상 참여				
연구실적	1편 이상						

† 일부 학회에서는 연차학술대회나 연구실적을 수련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학회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어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자격 취득 및 유지 비용

국가 자격 취득 비용

자격증 취득 비용은 수련비, 시험 응시료, 연수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 종류 및 급수에 따라 편차가 크다. 국가자격증 중 청소년상담사는 급수와 관계없이 총 372,000원의 비용(필기 26,000원, 면접 16,000원, 연수비 330,000원)이 소요되며, 임상심리사는 총 40,200원(필기 19,400원, 면접 20,800원)으로 비교적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평균적으로 국가 자격 1급 시험 응시료는 필기

및 면접 각각 19,400~20,000원 수준이며,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비용은 33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4와 같다.

전마투 기준 민간 자격 취득 비용

전마투 기준 민간자격 취득비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자격취득비용의 추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표 8의 수련시간 기준과 표 13의 수수료 현황을 바탕으로, 전마투 기준에 따른 민간상담자격 취득비용을 산정하였다. 비용 산정에는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개인상담·사례

상담학연구

표 14. 국가 자격 취득 및 유지비용

자격증명칭(학회/총인)		필기시험	면접시험	연수 비용	총 비용(최소 평균)
청소년상담사	1급	26,000	16,000	330,000	372,000
	2급	26,000	16,000	330,000	372,000
	3급	26,000	16,000	330,000	372,000
임상심리사	1급	19,400	20,800		40,200
	2급	19,400	20,800		40,200

* 비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시 기준, 정신건강요원의 경우 정확한 정보공시 없음

슈퍼비전, ② 공개사례발표, ③ 집단상담(집단원) 경험, ④ 심리검사 슈퍼비전만을 포함하고, 내담자 경험, 자기분석, 심리검사 ‘실시(수행)’ 등은 제외하였다. 공통 단가는 개인상담·사례 슈퍼비전 10만 원/시간(또는 회기), 공개사례발표 25만 원/회, 집단상담(집단원) 25만 원/사이클(15시간; 시간당 약 1.67만 원), 심리검사 슈퍼비전 10만 원/시간(또는 1사례)으로 가정하였다. 시간당 슈퍼비전

비용, 집단상담 및 공개사례발표 비용은 정문주 외(2024)에서 제시한 최소평균추정치를 토대로, 각 학회 홈페이지 홍보란에 등록된 평균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이후 각 학회 및 급수별 최소 요구량에 해당 단가를 곱해 개인 수련비(예상)를 계산하고, 여기에 검정료를 합산하여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첫 번째,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비용은 1급 B범주가 개인 수

표 15. 민간 자격 취득 비용(원)

자격증명	급수	검정료					자격증 발급비	검정료 총비용	개인수련 비용(예상) [†]	총비용(예상)
		수련자격 심사	수련요건 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A범주	38,500	66,000	120,000	176,000	-	400,500	약 6,583,335	약 6,983,835	
	1급 B범주	38,500	66,000	120,000	176,000	-	400,500	약 8,916,670	약 9,317,170	
	2급 C범주	27,500	44,000	100,000	99,000	-	270,500	약 2,750,000	약 3,020,500	
	2급 D범주	27,500	44,000	100,000	99,000	-	270,500	약 5,000,000	약 5,270,500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55,000	33,000	110,000	55,000	22,000	275,000	약 7,250,000	약 7,525,000	
	2급	33,000	22,000	88,000	88,000	22,000	253,000	약 2,500,000	약 2,753,000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	-	140,000	80,000	20,000	-	-	약 380,000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는 급수가 존재하지 않음, † 개인수련비용의 경우 예상치로서 현재 각 학회 홈페이지 공시 정보 없음, 본 추정치는 표준 단가 가정에 기반한 예상치로서, 실제 지출액은 지역·기관·감독자 단가와 운영 방식, 발표 주관 단체의 수수료 정책 등에 따라 대략 ±20~30% 내외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 둔다.※“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은 정신건강요원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지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임상심리사 등과 병행되는 복합형 수련체계로, 기관별 운영비·지도감독료 등 비표준화된 단가 차이로 인해 공식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련비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산출을 생략하되,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을 전제한다.”

런비 8,916,670원에 검정료 400,500원을 합산한 총 9,317,17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급 A범주는 개인 수련비 6,583,335원과 검정료 400,500원을 포함한 총 6,983,835원, 2급 C범주는 개인 수련비 2,750,000원과 검정료 270,500원을 합산한 총 3,020,500원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2급 D범주는 2023년 기준으로 C범주의 수련시간 및 인정조건을 두 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 수련비를 5,0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에 검정료 270,500원을 더해 총 5,270,500원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상담심리사 1급은 7,525,000원(7,250,000원 + 275,000원), 2급은 2,753,000원(2,500,000원 + 253,000원)이었다. 한편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는 수련이 주로 등록된 수련기관에서 근무와 병행하는 구조이므로 개인 수련비 추정에서 제외하고, 표에 제시된 시험·발급 등 검정 관련 비용만 38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한국상담학회는 1급(A/B), 2급(C/D)처럼 수련 범주가 세분되어 있어 요구 수련시간·과업 구성이 비용 격차로 직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였다(표 15).

자격증 평판 결과

온라인 웹크롤링을 기반으로 수집한 자료

3,687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정책 시행 전후 제도 연계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감성 분석 결과, 정책 시행 후 긍정 인식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4.0%p 이상)한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14.4%p 상승), 상담심리사(4.3%p 상승), 전문상담사(6.9%p 상승)였다. 이는 해당 자격증들이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사회적 신뢰도 및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상심리사(1.6%p 증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6%p 증가)는 긍정 인식 변화폭이 미미하여 정책 시행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의 경우, 예를 들어, 명상심리상담사는 28.3%에서 29.1%로, 놀이심리상담사는 38.5%에서 40.1%로 변화하여 모두 유의미한 인식 개선 없이 제도 밖 자격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유지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 인식 변화폭이 4.0%포인트 이상일 경우를 '유의미한 증가'로 간주하였다. 이는 감성 분석 기반 사회담론 연구에서 $\pm 3\%$ 이내는 통계적 변동범위 내 노이즈로 해석되며, 4% 이상을 실질적 변화로 인정하는 기준을 따랐다(한국심리학회 정책보고서, 2023; Pang & Lee, 2008). 구체적인 결과는 표 16과 같다.

두 번째, 토픽 모델링 결과로서 실무 활용성과

표 16. 정책 시행 전후 감성 분석 결과

자격증명	시행 전 긍정(%)	시행 후 긍정(%)	증가폭(%)	유의미한 증가 여부
청소년상담사	50.1	64.5	+14.4	○
전문상담사	45.0	51.9	+6.9	○
상담심리사	48.9	53.2	+4.3	○
임상심리사	43.2	44.8	+1.6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42.1	43.7	+1.6	×
놀이심리상담사	38.5	40.1	+1.6	×
명상심리상담사	28.3	29.1	+0.8	×



그림 1. 전마투자사업시행 전 상담자격증관련 온라인 토픽모델결과



그림 2. 전마투자사업시행 후 상담자격증관련 온라인 토픽모델결과

제도 인식의 핵심 주제 변화를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전마투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상담 관련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불확실성에서 실무 중심성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구조의 명확한 변화를 보였다. 정책 시행 전(2024년 1월~6월) 온라인 담론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과 정보 탐색 중심의 토픽이 주를 이루었다. “졸업 후 뭐하지”, “민간자격증 너무 많다”, “비용만 들고 취업은 안 됨” 등의 문장은 상담 자격증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진입 장벽에 대한 회의, 취업 연계 부재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련기관 어디서 받아야 하냐요”, “자격증 추천해주세요” 등의 문장은 정보 탐색 및 비교 중심의 행태를 보여주며, 제도적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방향성 탐색 욕구를 드러냈다. 반면, 정책 시행 이후(2024년 7월~2025년 5월)에는 담론의 중심이 명확히 전환되었다. “마음투자사업 자격기준 통과해야 해요”, “청소년상담사는 수련이 없어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쉬워요”, “학교상담

센터 근무 후기” 등의 표현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이는 해당 자격증이 제도적으로 채용과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청소년상담사는 “수련 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담론과 함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동반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증 vs 민간자격증”, “실무에서 요구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등 자격증 간 비교와 실효성 검토 중심의 실용성 담론이 강화되었다. 이는 정책 시행이 자격증 담론을 단순 추천에서 실제 활용성과 정책 대응성 중심으로 전환시킨 결과였다. 한편, “심리사는 심리학 전공자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비전공자는 진입이 어렵다”, “수련기관이 제한적이다” 등의 불만이 시행 전후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심리학 전공자만 심리사를 할 수 있다는 온라인상에 정보공유가 진입의 공정성과 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시행 이후 자격증 담론은 지인·동료 의견, 온라인 커뮤니티 후기, 학

회·강사 홍보 등 비공식적 권고에 의존하는 ‘추천 중심 탐색(recommendation-driven exploration)’ 단계에서, 정책과 연계된 실무 채용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한 실질적 평가 및 상호 비교 경쟁 단계로 이동하였으나, 심리학 전공 제한 자격과 같은 제도적 폐쇄성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 형성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상담 자격 제도의 구조적 복잡성과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격 취득 과정의 경제적 부담, 사회적 평판, 실무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이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한국의 상담 자격 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모두에서 자격 요건, 수련 체계, 시험 방식 등에서 구조적 일관성이 빠져 있었다. 일부 국가자격은 필기시험이 없거나 수련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격의 질과 보장에 대한 신뢰성이 낮았으며, 민간자격은 필기 및 면접시험, 수련 시간, 사례보고, 공개 사례발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요건이 학회별로 달라 통일성과 상호 인정 기준이 부족하였다. 특히 일부 민간자격은 국제 인증 기준(CACREP)보다 높은 수련 시간을 요구하면서도 전마투 사업 대상 자격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에서의 활용성과 신뢰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가자격이 반드시 민간 자격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보장을 담보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국내 상담 자격 체계의 복잡성과 비표준성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격의 학문성이나 취업 연계성 등 단면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며(안성희 외, 2022; 오경자, 2003), 실제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 복잡성과 수련자의 부담, 비용과 시간 투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정문주 외, 2024; 성현모 외, 2022; 안성희 외, 2022). 또한 일부 정책 보고서는 외국 제도의 형식적 도입에 치중하여, 국내 수련 현실과 질적 인증 부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 이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임지숙 외, 2025). 자격 체계는 단순 비교나 차용을 넘어, 수련자 관점에서의 비용과 질적 기준의 적정성을 반영한 근본적 재설계가 요구된다(서미아, 김지선, 2020; 김태현 외, 2020). 이를 위해 자격 기준의 국가 차원 통합, 수련 질의 관리, 자격 공신력 확보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상담사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황옥경 외, 2024; 편경희, 2024). 이는 전마투 사업과 같은 공공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향후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형태소·감성분석 결과 상담 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정책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마투 사업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자격 요건으로 채택된 후 긍정 감성 비율이 14.4%p 상승해 정책 연계가 자격 신뢰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마투에 포함된 일부 민간자격 역시 “국가가 인정한 민간 자격”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긍정 평가가 확대되었다. 반면, 전마투 사업에서 제외된 민간자격들은 상당한 교육·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활용 가치가 제약된 자격’으로 인식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은 제도적 가치도 높아야 한다”는 직업·자격 논의(정동일, 2009)를 거스르는 결과다. 상담 관련 국가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적용한 사업 선정 기준은 선정된 소수 자격(및 이를 발급하는 학회)의 시장 지배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전마투 이전부터 충실한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온 다른 민간자격의 시장 접근권을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래 상담이 주요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정신건강 관련 국가자격이 ‘정신건강요원’ 범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용자들이 이들 자격을 곧바로 전문상담 수행이 가능한 자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직종의 전문 영역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무 범위 구분과 상담 역량 보완을 위한 추가 수련 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적 편의 집행은 상담 서비스의 질적 균일성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상담 효과의 핵심 요인인 지속성과 자발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나고은 외, 2021; 임지숙 외, 2025)에서의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일부 자격의 수련 요건과 시험 방식은 정보 공개의 부족이나 불일치로 인해 정량적 비교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감성 분석은 네이버 등 공개 플랫폼 자료에 기반해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키워드 분류 중심 방식은 문맥 해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셋째, 민간자격의 수련비용은 공시 자료에 기반해 표준화가 어렵고, 상담 대상이나 방식에 따라 전문가 인건비가 달라져 비용 산정에 특수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용 비교 결과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국가 간 제도 차이로 CACREP, WCP 등과의 정량 비교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가자격이 민간자격보다 본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증 자료를 통해 자격의 우열보다는 구조와 운용 방식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책 도입이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마투와 같은 임시적 정책은 오히려 구조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자격 구조와 비용, 평판, 정책 연계를 통합 분석하여 자격제도의 불균형을 규명하고, 자격 체계 정비와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상담사 법안’ 입법의 학술적·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김정환 (2025).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OAK리포지터리), 2023년도 제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repository.kipf.re.kr/handle/201201/9837>
- 김태현, 김순옥, 임춘희, 조은숙 (2000). 가족상담 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61-186.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 (LPC) 와 인증프로그램 (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서미아, 김지선 (2020). 가족상담사의 비대면 화상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가족과 가족치료*, 28(4), 451-470.
- 성현모, 이상민 (2022).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19-38.

- 성현모, 이장희, 이은수, 박종성, 이상민 (2022).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 명칭 탐색. *교육치료연구*, 14(2), 141-158.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21-36.
- 안성희, 성현모, 이상민 (2022).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1-12.
- 오경자 (2003).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및 심리사 자격제도의 연계가능성 탐색: 자격제도간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5-56.
- 오정일 (2012).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1), 33-57.
- 이정환 (2022.08.11.). 연이은 상담사법안 발의...의협“강력 반대”. 의협신문.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14&sc_word=%EC%83%81%EB%8B%B4%20%EB%B0%9C%EC%9D%98&sc_word2=9A3B1
- 이종범, 김수임 (2024). 상담의 정체성과 상담사의 역할: 비의료적 사회서비스의 주체. *상담학연구*, 25(2), 1-23.
- 이형국 (2016). 상담전문가 인력현황 조사 연구 I:(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109-132.
- 이형국 (2018). 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인력현황 및 관련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9(3), 1-25.
- 임명환 (2014).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론 고찰: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1(4), 345-359.
- 임지숙, 손보영, 백상은 (2025).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련기관 인증 모형 제안: 해외 법제화 자격 및 국내 민간자격을 기반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7(1), 33-67.
- 정동일 (2009).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한국사회학*, 43(2), 166-202.
- 정문주, 김창대, 김수임, 김혜경, 박현민, 이형국, 이필원, 이종범, 손은령 (2024). 한국의 상담 관련 자격증 및 상담센터 현황과 자격 관련 실태분석. *상담학연구*, 25(6), 1-19.
- 편경희 (2024). 국가 정신건강 정책 추진과제에 근거한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탐색.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2-22.
- 황옥경, 이영애, 송미령 (2024).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성과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3(4), 89-124.
- Baker, L. D., & McCallum, A. K. (1998). Distributional clustering of words for text classification. *ACM DIGITAL LIBRARY*, In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96-103.
- Forte, J. M. (2015).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eparation and performance match*. Doctoral dissertation, Wichita State University.
- Kim, K. Y. (2022). Multidisciplinary Research for Soci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3), 5-6.
- Lans, W., & Van der Voordt, D. J. M. (2002). Descriptive research. In *Ways to study and research urban: architectural and technical design*,

- TU Delft, 53-60.
- Lu, H. T., & Pillay, Y. (2020). Examining the 2016 CACREP standard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ounselor Preparation and Supervision*, 13(2), 10.
- Moodley, R., Gielen, U. P., & Wu, R. (Eds.). (2013).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Routledge.
- Mustajab, D., & Irawan, A. (2023).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on employment outcomes. *Advances in Community Services Research*, 1(2), 54-63.
- OECD. (2017). Skills and Global Value Chains. *OECD Publishing: Outlook*, 688, 2017.
- Pang, B., & Lee, L. (2008).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s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2(1-2), 1-135.
- Vayansky, I., & Kumar, S. A. (2020). A review of topic modeling methods. *SEMANTIC SCHOLAR: Information Systems*, 94, 101582.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4Y0Z8X0Y5W0W9V0D0D1C1C(의안정보시스템)
- <https://www.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10912> (한국고용정보연구원)
- 원고 접수일 : 2025. 06. 16.
수정원고 접수일 : 2025. 06. 30.
게재 결정일 : 2025. 06. 30.

An Analysis of Counseling Certification Acquisition Processes and Cost Structures in South Korea

Moon-Joo Cheong¹ · Chang-dai Kim² · Soo-im Kim³ · Hye-Kyung Kim⁴
Hyun-Min Park⁵ · Eun-Young Son⁶ · Pil-Won Lee⁷ · Jong-Beom Lee⁸ · Hyeong-Kuk Lee⁹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Counseling, Wonkwa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Dankook University

⁴Counselor, LG Electronics Gasean R&D Campus Psychological Counseling office, ⁵Adjunct Professor, Suwon Catholic University

⁶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⁷Associate Professor, Dongkook University WISE campus

⁸Full-Time Counselor, College Life Counseling Center of Dankook University

⁹Associate Professor, Liberal arts College of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dualism within South Korea's counsel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national and private credentials. It empir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complexity arising from differences in qualification requirements, training frameworks, examination criteria,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as well as the imbalance in publicity,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among institutions. Employing a mixed-methods approach, the study integrated quantitative analyses—including training requirements, cost structures, sentiment analysis,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Index (EFI)—with qualitative assessments of online discourse and case-based institutional practices. Through this process, it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conomic burden of qualifications, social reputation, and policy applicability. As a result, certain private certifications failed to secure public trust and exhibited low institutional applicability, despite requiring extensive training and imposing high financial burdens. Moreover, the perceived social credibility of certifications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alignment with public policy initiativ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certification frameworks, the establishment of an accredited training institu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public financial support mechanisms, and the enactment of a "Counselor Act." This research makes both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s by offering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certification quality, economic sustainability, and public sector utility.

Key words : Counseling certific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certification, Structural imbalance, Training costs,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framework